



독일 분데스리가 심판들, VAR 판정을 위한 경기장

독일 분데스리가 심판들, VAR 판정을 위한 경기장 내 발표 시작

독일 축구 심판들은 이번 주부터 비디오 판독 판정을 설명하기 위해 관중들에게 NFL 스타일의 발표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메이저사이트](#)

바이에른 뮌헨과 독일 챔피언 바이엘 레버쿠젠이 토요일부터 홈 경기에서 시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9개 클럽 중 하나라고 독일 리그가 월요일 밝혔습니다.

이달 초 잉글랜드 리그컵에서 열린 시범 경기에 이어 이번 주에는 바이에른과 홀슈타인 킬의 토요일 경기를 포함해 독일 프로그램의 첫 번째 물결에 5경기가 선정되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상위 2개 남자 리그의 소수 경기에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심판은 비디오 판독(VAR) 시스템의 검토가 필요한 사건이 발생한 후 공용 주소 시스템에 연결된 헤드셋 마이크를 사용하여 팬들과 직접 소통합니다. 최종 판정은 경기장에서 중계되며, 현장 심판과 동료들 간의 토론은 중계되지 않습니다. [먹튀검증](#)

독일에서는 여전히 많은 팬들이 VAR이 경기 흐름을 방해하고 수비수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리그 심판 기관의 최고 경영자인 크누트 키르허는 월요일 팬들에게 VAR 절차를 더 명확하게 하는 것이 논리적인 다음 단계라고 주장했습니다.

키르허는 성명에서 "비디오 어시스턴트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모든 논의에도 불구하고, 경기장에서 심판들의 결정을 보다 투명하게 내리기 위해 (독일 축구 리그) 및 그 클럽들과 계속 협력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공시'에서는 명확성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첫걸음을 내딛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심판들에게 절차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이례적으로 보일지라도 새로운 접근 방식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먹튀검증사이트](#)

축구는 다른 팀 스포츠에서 널리 사용되는 발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은 편입니다.

NFL 심판들은 1975년에 페널티 판정을 설명하기 위해 무선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메이저 리그 베이스볼은 2022년 리플레이 리뷰에서 인파크 발표를 시작했으며, 오랫동안 럭비 심판들이 마이크를 사용해 왔습니다.

축구에서는 2023년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열린 여자 월드컵과 기타 FIFA 대회에서 경기장 내 발표가 있었습니다.